



# 섬세한 손가락 터치감 ... 태블릿 뺀치는 일체형 PC

김영식 코리아정보통신 대표가 '일체형 PC'를 처음 내놓은 것은 2011년이었다. 18.5인치 터치스크린 모니터와 PC 본체를 하나로 합친 제품이었다. 키보드, 마우스 등 별도 입력장치가 필요 없으면서 화면이 밝고 부피가 작은 것이 특징이었다. 신용카드를 물건을 구입할 때 쓰이는 포스(POS) 단말기, 카지노 장비, 스크린 골프장 단말기 등의 용도로 많이 활용됐다. 전시회 홍보용 디스플레이로도 쓰였다. 거처가 하나 늘어난 800여곳에 이르렀다.

김 대표는 사무실이나 집에서 쓸 수 있게 제품을 다시 디자인하기 시작했다. 시장이 작은 산업용에 머물러선 성장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화면을 더 키웠고 투박한 외형도 세련되게 바꿨다.

◆화면 커도 터치감 우수  
코리아정보통신이 지난 4월 내놓은 21.5인치 올인원 터치 PC '뉴라이프'는 개인용에 초점을 맞춘 제품이다. 모니터 모양을 한 태블릿 PC에 가깝다. 별도의 선 없이 무선 와이파이로 네트워크에 연결된다. 손가락 터치로 화면을 키웠다 줄였다 하고 클릭과 드래그 등도 가능하다. 태블릿PC나 스마트폰에서 하는 손가락 동작을 똑같이 할 수 있다. 자판 또한 화면에서 곧

바로 띄워질 수 있다. 운영체제(OS)는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채택했다. 태블릿PC처럼 필요한 앱(응용프로그램)을 내려받는 게 가능하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를 기본 OS로 쓸 수 있다.

## 21.5인치 대형 화면에도 손가락 터치 감도 우수

## 하반기 美·베트남 등 수출 거울로 쓸 수 있는 PC도 개발

10인치대 초반인 태블릿PC에 비해 화면이 훨씬 큰 데도 터치감이 떨어지지 않는 게 장점이다. 이 회사가 자체 설계한 메인보드와 터치 응용기술이 들어간 덕분이다.

◆중국시장에도 진출  
대기업에서 기술 영업을 했던 김 대표는 1998년 창업했다. 사업 초반엔 애플이 선보인 CRT 모니터 판매와 고장난 하드디스크의 데이터 복구를 주로 했다. 그래픽 카드 등 컴퓨터 부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일도 했다.

2000년대 초반 LCD 모니터 제

조를 하면서 회사가 본격적으로 커졌다. 영업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팔릴 정도로 호황이었다. PC 메인보드 설계와 패널 제가공 기술 등 제조 노하우를 하나하나 쌓아나갔다. 2006년 중국의 한 은행에 POS 모니터를 납품하면서 해외 진출 물꼬를 텄다. 중국 난징에 2008년 공장을 세웠다. 부가가치가 낮은 개인용 모니터 등은 중국에서 제작하고, '올인원 PC' 등은 국내 부산 공장에서 제조한다.

◆대화면 올인원 PC 등 출시 예정  
김 대표는 최근 화면을 23인치로 더 키운 일체형 PC를 내놨다. 디자인도 조금 더 세련되게 개선했다. 단계적으로 화면을 키워 32인치 제품까지 내놓을 예정이다. 음질이 좋은 스피커를 부착하는 등 제품 가치를 높여갈 계획이다.

용·복합 제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평상시에는 거울로 보다가 손가락을 터치하면 화면으로 바뀌는 '미러링' 일체형 PC를 국내 한 가구회사와 개발 중이다. 하반기에는 카자흐스탄, 미국, 멕시코, 베트남 등에도 수출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일체형 PC 신제품 덕분에 작년 40억원 수준이었던 매출이 올해 200억원으로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안재광 기자 ahnj@hankyung.com



김영식 코리아정보통신 대표가 키보드, 마우스가 필요 없는 올인원 터치 PC '뉴라이프'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로 신청 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삼미통상-오분국 (02)3662-3255 △리만-킵스랜드 펌프 (02)6925-3537 △오리엔탈드림-탄소온열매트 (031)352-7601 △코리아정보통신-21.5인치 정전압 터치 올인원 PC (02)1588-5178

# "하지정맥류 치료를 빼다니 ..." 실손보험 축소에 빨난 의사들



"하지정맥류 치료를 성형이나 피부미용과 같은 시술로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실손의료보험에서 하지정맥류 레이저 및 고주파 치료 시술 보장이 빠진 데 대한 한 의료인의 반응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하지정맥류 치료를 위한 레이저 및 고주파 시술을 실손보험 보장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은 이 약관을 사업자별 개정약관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신규 실손보험 가입자나 약관을 갱신해 새 약관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는 하지정맥류 치료를 위한 레이저 및 고주파 시술을 받을 때 실손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하지정맥류는 다리에 있는 정맥이 부풀어 올라 피부 밖으로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오는 질환이다. 미관상 보기 싫다는 문제뿐 아니라 통증, 경련, 혈관염, 혈전, 궤양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다. 다리 통증 때문에 수면의 질도 떨어진다.

## 한일시멘트 달아나고, 삼표 쫓고 ...

## 뜨거워지는 즉석 시멘트 시장

(드라이 모르타르)

물만 부어서 바로 쓰는 즉석 시멘트인 '드라이 모르타르'를 둘러싼 경쟁이 뜨겁다. 지난 20여년간 한일시멘트가 독점하다시피한 이 시장에 삼표그룹이 뛰어들어 맹추격하자 한일시멘트도 수성에 나섰다.

한일시멘트는 최근 경기 여주에 있는 SPM의 생산공장을 3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다. SPM은 드라이 모르타르 4위 업체로 시장 점유율은 5%다. 한일시멘트 관계자는 "여주공장의 생산 규모는 연 120만t"이라며 "정비를 마치는 대로 가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임대를 통해 그동안 취약했던 수도권 남동부 및 강원권을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표그룹은 영남권에 세 번째 드라이 모르타르 공장을 짓기 위



해 부지를 물색 중이다. 삼표는 지난달 인천의 생산공장(사진)을 준공하면서 연 140만t의 생산능력을 갖추게 됐다. 삼표 관계자는 "이르면 연말 착공을 목표로 부산 등을 돌며 공장 부지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드라이 모르타르는 바닥 벽 등 미장용 및 보수용 마감재로 쓰인다. 국내 드라이 모르타르 시장은 연간 3500억원 규모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 제습·건조 등 선택 가능 청호나이스 '이과수 제습기'

청호나이스가 '이과수 제습기 파워윈드'(사진)를 28일 내놨다. 이 제품은 11.4L 용량으로 일반 실내 제습기



능과 함께 빨래 건조, 옷장 건조 등의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장마철이나 추운 날씨 탓에 환기하기 어려운 환경에 적합한 기능이다. 제품 상부 토출구가 돌출돼 풍량을 강하게 하면 빨래 건조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터보' 기능을 선택하면 옷장, 신발장 등 특정 공간에서 일반 제습기 대비 두 배가량 바람을 내보내 신속한 건조를 돕는다.

# "환율 치솟으면 어찌나" ... 브렉시트에 가구업체도 긴장

## 환율 급등 맨 원자재값↑ 한샘, 장기계약으로 전환 까사미아는 수입 줄이기로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 '후폭풍'으로 환율이 요동치면서 국내 가구업체에 비상이 걸렸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원화 가치 하락) 파티클보드(PB) 등 주요 원자재 조달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환율을 특정 시점에 고정시키거나 수입 비중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단기적

원자재 수입 환율손실 헤지 노력
한샘 장기 공급 계약 체결 추진
현대리바트 환율급등 시 조달 시점 연기
까사미아 수입 원자재 비중 축소

자료:각사

으로 일부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구 1위 한샘이 환율 급등에 대비해 장기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 시점에 공급받는 원자재를 현재 환율로 적용하기 위해서다. 환율이 추가로 오를 경우 손실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한샘은 작년 한 해에만 태국, 말레이시아,

루마니아 등에서 600억원어치의 원자재를 수입했다. 한샘 관계자는 "해외 공급처와 다년간 신뢰 관계를 쌓았기 때문에 강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며 "당장의 환율보다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수입 물량이 크지 않은 가구 업체들은 수입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까사미아는 35% 수준인 원자재 수입 비중을 하반기 30%까지 낮춘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내 업체들로부터 조달 비중을 늘려 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원자재

수입 비중이 10% 안팎인 퍼시스와 예넥스 등에 비해 과도하게 수입 비중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대리바트는 원자재 공급 시점을 미루는 것까지 검토 중이다. 일단 상황을 지켜본 뒤 환율이 안정되면 원자재를 수입하겠다는 의도다. 이 회사의 원자재 수입 비중은 30% 안팎이다. 현대리바트 관계자는 "아직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지만 원·달러 환율이 더 오르게 되면 한 해 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지수 기자 onething@hankyung.com

# 옥상 단열 방수 한번 시공으로 끝!

## 불소아연판으로 만든 스틸단열방수가 정답

**옥상 방수!**  
하루 종일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옥상! 여름 장마, 겨울 동파를 대비한 단열과 방수! 아주 중요한 건물 관리입니다. 누수, 동파, 균열 방지에는 단열 스틸 방수 판넬이 가장 적합합니다. **철하고, 붙이고, 씌우고 다해봐도 오래가지 않는 물세는 옥상!**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이런 고민 끝!

특히제품인 단열 스틸 방수 판넬 시공으로 한 번에 끝! **본 단열판넬은 부식, 미끄럼, 물 썩 등이 없습니다.** 우레탄 페인트, 우레탄 장판, 스틸기와 지붕이 아닙니다. 본사에서 개발한 스틸 단열 방수 판넬은 기존의 방수와 같이 바닥이 갈라지면 같이 쪼개지는 영터리 방수가 아닙니다. 특히 방수 단열 스틸 방수 판넬은 세계 최강 방수 지킴이입니다.

단열 스틸 방수 판넬은 불소수지에 근접하는 **내후성과 내식성**이 우수한 포스코 아연도 철판 방수 제품입니다. 옥상 바닥이 패이고, 갈라지고, 망가진 우레탄 위에도 시공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반영구적 신공법 특수 방수 옥상 바닥용 판넬**입니다. 에너지 절감으로 친환경적 차원에 기여하는 차원이 다른 단열 방수 판넬 상품입니다.

주택

빌딩

지붕

화단

목상 스틸 방수

두차장 전용 스프링 방수

서울남부지사 1599-3018  
경기남부지사 1599-4753  
전남광주지사 1599-7652

서울북부지사 1599-3912  
충북대전지사 1599-9646  
부산지사 1599-6397

경기동북지사 1599-3206  
충남지사 1599-2371  
대구지사 1599-7810

경기서북지사 1599-3154  
전북지사 1599-3596  
경남지사 1522-0748

강원지사 1599-1761

**모집문의 1577-1371**

스틸방수전문기업 (주)연합  
옥상단열방수·외장리모델링

스틸방수전문기업 (주)연합  
1599-3645

**모집중**

울산지사  
제주지사  
경북지사

스틸방수전문기업 (주)연합  
옥상단열방수·외장리모델링

# 지점 모집

(해외지점 포함)

**초보자도 2~3일 배우면 누구나 고수의 가능합니다!**

**견적파일  
계약파일  
광고파일  
지원합니다!**

◆ 자격 ◆  
차량 소유 운전 가능한 분  
자재 2천만원 구입 가능한 분

**모집문의 1577-1371**

스틸방수전문기업 (주)연합  
옥상단열방수·외장리모델링